



# 인 제 뗏 목



# 인 제 군



## 인제 뗏목

부 문 : 민 속 놀 이

지 도 : 박 해 순

고 증 : 김 계 근 외 2인

인 원 : 60명 (남 55, 여 5)

옛부터 입목자원이 풍부한 인제지방에서  
는 관내 각지에서 벌채된 원목을 강물을 이  
용 운반했었다.

상남기린 지역에서 벌채된 원목은 내린천으  
로, 북면 서화지역에서 벌채된 원목은 인북천  
으로 띄워 보내면 내린천과 인북천의 합류지  
점인 인제읍 합강리에서 이를 수거하여 강변  
모래사장에 야적한다음, 운목에 지장이 없는 적  
절한 시기를 택해 뗏목을 만들어 소양강, 북  
한강 줄기를 따라 양구, 춘천, 양평을 경유,  
서울로 운반하여 공급하였다.

이와같이 우리 조상들의 애환이 서린 향토  
생활 문화를 발굴 보존하기 위해 학술 조사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용역)를 실시하여 인  
제뗏목 원형을 정립하고 이를 민속놀이로 개

발 육성하여 전통 향토문화로 전승하고자함.

**제 1 과정** : 목상이 지겟꾼등을 인솔 입산하여 작업에 임하기전 안전한 작업을 기원하는 산치성제를 올리고 벌목에 임하며 산치성제를 올리는 동안 농악놀이도 겸하여진다. 벌목된 원목은 목도로 하산하여 강물에 띄워 강의 합류지점인 합강정 부근에서 수거된다.

**제 2 과정** : 뗏목제작은 직경 5치, 길이 20 자의 원목을 25 ~ 30 개로 연결, 한묶음 (이를 한동가리라함) 하고 이와같은 묶음을 5 개로 연결 (이를 한바닥이라함) 하여 뗏목 선후미에 강다리 (운전대 : Y자형) 를 설치하여 2 사람 (앞뗏사공, 뒷뗏사공) 이 타고 운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들은 출발에 앞서 강치성제를 올린다.

**제 3 과정** : 강치성제가 끝나는 즉시 뗏목꾼들은 가족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합강정을 출발, 서울로 향했으며 4 ~ 7 일간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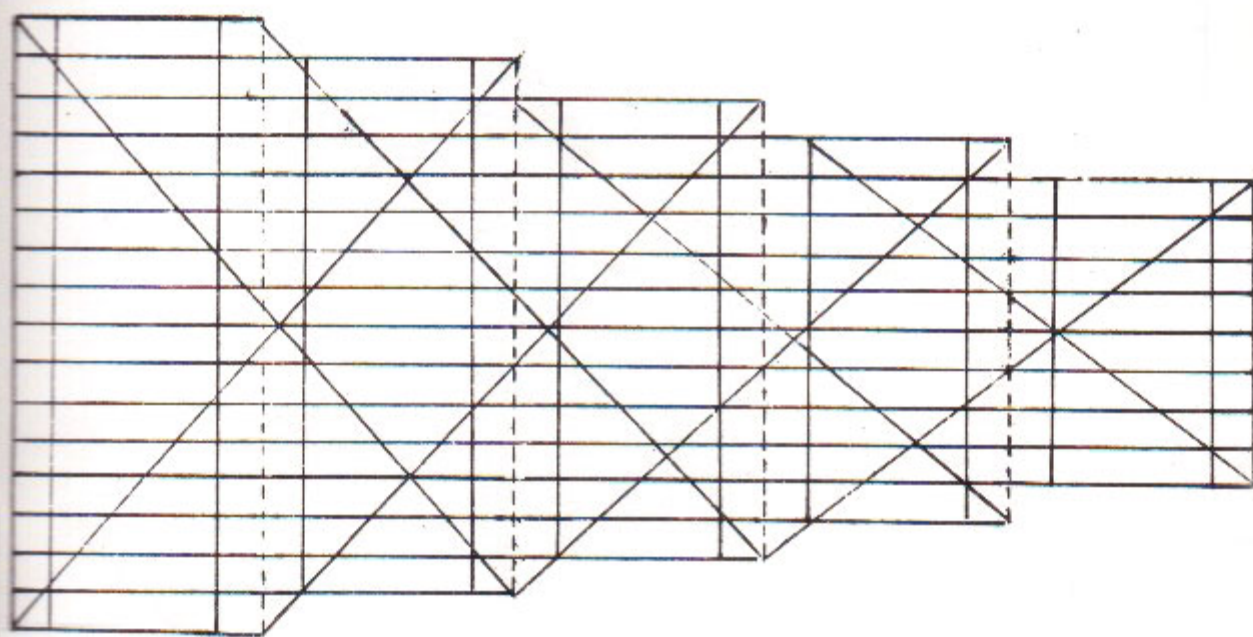


행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뗏목아리랑을  
흥겹게 부른다.

제 4 과정 : 이들은 서울 뚝섬이나 광나루 도  
착 즉시 전주인 강주인으로 부터 공가(노  
임)를 받거나 광목을 받고 4~5일간 육  
로를 이용하여 걸어서 귀향한다.

### ※ 뗏목 제작 방법

— 1 동 — | — 1 동 — | — 1 동 — | — 1 동 — | — 1 동 — |  
(25개)      (23개)      (21개)      (19개)      (17개)



— | 1 바닥 | —

## 뗏목 아리랑

1.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2.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 놓으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하네
3.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치거리 갈보야 술걸르게  
봄애기 여울에 떠내려오네
4.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서방님 좋다더니  
포와리 신연강이 아직일세
5.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봉의산 정자는 구경정자  
소양강 정자도 만나보세

6.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 변할줄 뉘 알았나
7.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변해졌네
8.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경오년 장마에 다풀렸네
9.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만단의 설움이 다풀어지네
10.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루 전달이 손짓만하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